

# 일본 『명심보감』의 수용에 관하여

성 해 준\*

• 目 次 •

- |                   |        |
|-------------------|--------|
| 1 들어가는말           | 3 맺는 말 |
| 2 일본 『명심보감』의 성립과정 |        |

## 1. 들어가는말

근세 일본에서는, 前期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주로 주자학이 수용되어짐과 동시에 일본적 儒學 즉, 古學이 발생하였고, 後期에는 종래의 주자학·고학·병학과 더불어 國學·洋學등 다양한 학문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도로 善의 내용을 담고 있는 勸善書(明心寶鑑·太上感應篇·功過格·陰鸞錄 등), 즉 勸善懲惡·因果應報의 서적이 지식인층에서부터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읽혀졌다

에도(江戶)시대, 특히 前期를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지식인(유학자)들은 권선서를 주자학과 併用하거나 주자학의 일부로서 수용했다 그 지식인들의 사상형성과 나아가서는 에도시대 일본인의 사상형성에 큰 역할을 한 대표적인 권선서로 『명심보감』을 들 수 있다

『명심보감』은 중국 명대(洪武26, 1393년)에 성립된 권선서의 하나로, 第1「繼善篇」에서 第20「婦行篇」에 이르기까지 20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유교도덕을 중심으로한 유교·도교·불교의 三教合一 사상이 나타나 있다 量的으로는 유교·도교·불교의 순이다 또 『명심보감』에는 論語·孟子·中庸·大學·莊子·朱子나 史書 등으로부터 선택한 勸善·勸學·勤勉·孝行·婦德의 勸獎등, 처세론 또는 인생론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명심보감』의 主眼은 위정자(官吏)·민중의 구별 없이 각 신분층의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금하고 인간생활에 중요한 선을 행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도덕사상으로서는 ① 천 또는 신의 응보(천 또는 신이 인간이 행한 선악에 상응하는 엄격한 賞罰을 줌) ② 지족안분(천으로부터 부여되어진 자연섭리에 만족할 것을 강조하여, 부나 욕구를 부정적으로 간주한 곳이 많다) ③ 위정

\* 동아대학교 강사

(위정자로서 정치에 입하는 자세와 위정방법이 설명되어져 있다)을 들수 있다 그 중에서도 천 또는 신의 관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명심보감』의 천 또는 신의 관념에는 주자학적인 측면에서 천이 현실세계에 내재하는(天理) 것으로 믿는 사고와 중국 고대 유교의 천을 현실세계에 외재하는 인격적인 존재(天帝)라고 믿는 사고가 併存하고 있다

이 『명심보감』은 중국을 비롯하여 조선·일본·베트남·스페인·프랑스·독일 등 세계 각국에 傳播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읽혀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조선·일본의 東아시아 3국에서 가장 폭넓게 읽혀졌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자국의 『명심보감』만을 연구의 주요 과제로 삼고, 타국의 『명심보감』에 대한 내용의 이해 및 전파의 실태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이상 各國의 『명심보감』 수용실태와 사상적 역할을 국제적 시야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今後의 과제로 두고, 本稿에서는 일본 『명심보감』의 수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본 『명심보감』은 근세 전기의 위정자 및 지식인에게 널리 읽혀져, 그 條文을 인용한 서적과 『和刻本』이 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江戸시대에 『명심보감』의 條文을 인용한 서적이 편찬되어 교훈서로서 널리 읽혀진 것은 일본 『명심보감』수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명심보감』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前田金五郎·玉懸博之兩氏의 연구가 있다 前田氏는 『명심보감』의 條文이 江戸시대 前期 몇몇 지식인의 편찬서적에 인용되어진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sup>1)</sup> 玉懸氏는 小瀬甫庵의 사상이 『명심보감』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sup>2)</sup> 그렇지만 『명심보감』이 江戸사회에 미친 수용 및 변용의 전체적 이해는 金후의 과제이다 또 深澤秋男·小川武彦 兩氏의 『명심보감』관련 연구도 있지만 양쪽다 『명심보감』에 관한 선행 연구에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다<sup>3)</sup> 兩氏는 明初에 간행되어 당시의 皇帝의 칙선서 및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행해진 『명심보감』을 明末에서부터 清初에 걸쳐 성행한 민간유통의 勸善懲惡의 善書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심보

1) (1)前田金五郎 「仮名草子の 發生과 展開」(日本古典文學大系 『仮名草子集』解説, 1965년 5월)과 「浮世物語 雜考」(『國語國文』1965년6월)에서 小瀬甫庵, 林羅山, 淺井了意, 野間三竹이 『명심보감』의 條文을 인용한 것을 지적했다

2) 玉懸博之 「松永尺五의 思想과 小瀬甫庵의 思想 - 彝倫抄와 童蒙先習을 둘러싸고 -」(石田一良 金谷治編 『藤原惺窩 林羅山』日本思想大系, 1975년)과 「慶長期의 小瀬甫庵의 思想」(石田一良 編 『日本精神史』 페리간사 1988년)에서 小瀬甫庵의 독자적인 사상상의 달성이 주자학에 더하여 『명심보감』의 사상을 섭취한 것에 의해 성취했다고 論하고 있다

3) 深澤秋男 「『浮世이야기』-付 『明心寶鑑』解題」(『近世文學資料類從』仮名草子編12, 1974년) 小川武彦 「『堪忍記』와 『明心寶鑑』」 『堪忍記』 出典上の 二 -中國種의 說話를 중심으로-(早稻田大學文學部編 『近世文學研究와 評論』제12호 1976년 6월)

감』의 성립배경을 비롯하여 출판목적이 民衆教化라고 하여 모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本稿에서는 『명심보감』의 일본전래의 역사를 살피고 또 위정자·지식인에 의한 『명심보감』의 條文을 인용한 관련서적의 편찬 및 「和刻本」의 출판상황을 밝히고자 한다

## 2. 일본 『明心寶鑑』의 성립과정

### (1) 전래와 그 경로

『명심보감』의 일본 전래 경로는 室町시대(1394년~1428년)에 五山僧을 통해서 중국으로 부터 유입과 安土桃山시대의 壬辰倭亂(文祿·慶長の 役) 때 조선으로부터 유입의 두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sup>4)</sup>

먼저 前者에 관해서 고찰해 보면, 室町 문화의 基底에는 불교·유교·노장사상 및 신도사상이 있었고, 五山에서는 三敎一致思想을 볼 수 있다 또 禪僧 및 上層 武家들의 대륙문화에 대한 憧憬이 室町문화의 내용을 풍요롭게 했고, 그 중에서도 禪僧, 특히 五山の 승려들이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漢文의 문장구성·회화 등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漢文의 실력에 있어서는 五山の 禪僧을 능가할 인물이 없었고, 중국·조선의 士大夫들과 버금가는 교양과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다 또 人的 문화교류 속에서 外交의 실무에도 참여하여 외교관의 일에도 五山僧들이 관여했다<sup>5)</sup>

『명심보감』의 일본전래의 배경에는, ① 오산과 중국과의 폭넓은 교류를 들 수가 있다 즉 『명심보감』 初刊本の 간행시기에 해당하는 洪武帝시대(14세기), 간행장소인 중국 남방(江蘇省의 太倉등)에 五山僧이 빈번하게 왕래했다<sup>6)</sup> 江蘇省의

4) Lothar G Knauth·白石晶子 「明心寶鑑의 流通과 에스파니아譯의 問題」(多賀五郎編 『近世아시아 教育史研究』文理書院 1960년 865頁) 및 下出積與 「江戸時代に 있어서 農民과 善書- 太上感応編纂驗에 관해서-」(『日本宗教史論集 下卷』吉川弘文館 1976년 252頁)는 善書의 일본 전래에 대해서 室町시대 五山の 留學僧에 의한 중국전래와 임진왜란때 조선으로 부터의 傳來說을 示唆하고 있다

5) 芳賀幸四朗 「五山文學의 隆盛」(『中世禪林의 學問 및 文學에 관한 研究』日本學振興會刊, 1956년 336-359頁), 村井章介氏의 「建武·室町政權과 東아시아」(『講座日本歷史』中世2, 東京大學出版會 1985년 2頁), 石田一良氏의 「禪의 思想과 室町文化의 精神」(『日本思想史概論』吉川弘文館 1963년 133頁) 참조

6) 西尾賢隆氏의 「室町幕府 外交에 있어서 五山僧」(『日本歷史』吉川弘文館 1993년 2월호)에 의하면 明朝 때에 성립한 弘武 元年(1368년 이 시기 江蘇省의 太倉의 黃渡市 舶司가 설치되었던 것을 볼 때 絶海가 蘇州郊外의 黃渡에 입항했다)을 처음으로 해서, 洪武 5년(1372년 杭州), 洪武 6년(1373년,杭州), 洪武 25년(1392년, 江蘇省) 등에 五山僧이 入明한 기록이 있다 또 庄(4)의 「明心寶鑑의 流通과 에스파니아 譯의 問題」, 870頁에 의하면 『명심보감』의 스페인어 譯者, 도미니코派 선교사가 秀吉의 시대에 외교관계를 처리하고 있던 五

太倉은 이후도 『명심보감』 재판본의 대부분이 편찬 간행되었던 장소이다 또 「和刻本」의 기본이 되었던 판본도 여기에서 간행되었다 이상의 사실로부터 五山僧의 入明에 의해 다른 서적과 함께 『명심보감』도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五山僧과 『명심보감』과의 관련에 대해서 小川武彦氏는 江戸시대 성립된 『禪林句集』 訓解書 引用書一覽에서 『명심보감』의 서적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禪林句集』의 본문에 『명심보감』이 인용된 사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7)</sup>

『禪林句集』은 室町시대의 臨濟宗 妙心寺派의 승려인 美濃國(지금의 岐阜縣) 賀茂郡의 土岐持頼의 아들, 東陽英朝(正長一 - 永正一, 1428~1504)가 편찬한 것이다 이 서적은 불서·유서·노장계의 諸書 등으로부터 一言에서 八言까지 對句에 이르는 禪門을 사용한 佳句秀句를 약 4200句 收錄하고 있다 『禪林句集』에는 『명심보감』의 條와 유사한 내용을 14군데 볼 수 있다 江戸時代의 元祿元(1688)년 『禪林句集 集中訓解書』에서는 「稿巽陽山阜己十子曰」이라는 인용의 典據가 나타나 있고, 그 중 약 200書 가운데 『명심보감』의 서적명도 記載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의 頭注에는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한 것을 지적한 부분이 十一個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五山僧이 『명심보감』을 전래, 閱讀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또 그후 『禪林句集』에서 인용된 것 이외에 『명심보감』 條文을 인용한 것으로 『天草版金句集』(壬辰倭亂 翌年인 1593년 편찬)이 있다 『天草版金句集』의 편찬자로 보여지는 선교사 하비안은 日本 耶蘇教(기독교)에 입회하기 전에는 「禪僧」의 僧侶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五山僧과 『명심보감』과의 깊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sup>8)</sup>

이상으로 부터 일본에 있어서 『명심보감』의 初傳은 중국에서의 출판 직후인, 15세기 중엽 室町시대 五山の 留學僧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五山僧에 의한 중국으로부터의 전래 당시의 사회상황에서 보면 『명심보감』을 접촉하

山の 禪僧과 應對한 사실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조선후기의 실학자 가운데는 일본의 유학을 높이 평가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丁若庸(1762~1836)은 일본 유학의 발전은 중국의 江蘇 浙江地方과의 直接交流(시대적으로는 중국의 明末 淸初이므로 江戸時代 中期)를 하여 중국의 많은 良書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학문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한다 「大抵日本本因百濟得見書籍, 始甚蒙昧, 一直通江浙之後, 中國佳書無不購去, 且無科擧之累, 今其文學, 遠超吾邦, 愧甚耳」(『示二兒』 『與猶堂全書』 第一輯 第21卷 443頁)

이들의 關連은 河宇鳳氏의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一志社, 1989年 223頁) 參照

- 7) 「『堪忍記』의 出典上의 二 -中國種의 說話를 중심으로-」(『近世文藝』 제12호, 1976년 1頁)에서 「貞享戊辰(1688년)의 跋文을 가진 『禪林句集』의 訓解書의 項에 『명심보감』이 언급되어 대중적인 서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括弧의 年代는 成)
- 8) 『天草版金句集』이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한 사실은 玉懸博之 教授의 敎示에 따라 조사한 것이다

고, 이해한 것은 극히 한정된 일부 지식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당시의 문화가 귀족·승려 등의 지배계급 중심이었고 전래시기가 戰國時代 말기로서 국내의 사회적·정치적 불안정기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들 수 있다

② 다음으로 일본 『명심보감』전래배경으로서 壬辰倭亂(文祿·慶長の 役)을 간과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豊臣정권이 멸망하게 된 계기는 조선침략이지만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의 일본으로의 강제유입이 後의 일본문화 형성에 크게 공헌하게 된다<sup>9)</sup> 그 당시 조선에서 일본에 강제 輸入된 대표적인 물품으로 陶瓷器·活字(印刷術)·書籍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後의 출판문화에 보다 큰 공헌을 하게되는 것은 활자와 서적이다

조선에서는 이미 1234년 세계 최초의 金屬活字本 『詳定古今禮文』이 출판되어 당시로서는 우수한 인쇄기술을 가지고 있었다<sup>10)</sup> 활자의 일본으로의 강제 流入은 豊臣系의 많은 武將(특히 宇喜多秀家)에 의해 인쇄공과 함께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sup>11)</sup> 그 중에서도 『명심보감』 관련으로서 조선양식의 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小瀬甫庵의 『明意寶鑑』·『政要抄』(慶長 刊行)의 출판을 들 수 있다 서적도 많은 武將에 의해 강제 유입되었지만 활자와 같이 宇喜多秀家에 의한 것이 많았고, 또 安國寺惠瓊 등의 僧侶도 함께 했다

일본에 도래한 조선서적은 세키가하라戰(1600년) 후 徳川家康에 의해 收集되었고, 또 家康은 이 조선서적을 중심으로 「駿河文庫」를 만들어 林羅山·僧侶崇傳

- 9) 임진왜란(文祿 慶長の 役)이 일본에 끼친 문화적 공헌에 대해서는 川瀬一馬 『古活字版의 연구』(安田文庫 1937년), 今田洋三 『江戸의 書店』(NHK북 299, 1977년 24頁), 奥野彦六 『江戸時代の 古版本』(臨川書店 1983년), 前田金五郎 『仮名草子集』(日本古典文學大系, 五頁), 田村貞雄 『日本史을 다시 읽음』(靑木書店 1986년 168頁), 崔官 『文祿·慶長の 役』(講談社 1994년 71頁) 등의 諸氏의 說을 참조했다
- 10) 이것에 대해서 中山久四郎氏는 『史學 및 東洋史의 研究』(東京賢文館 1934년 297頁)에서 조선의 印刷術에 관해서 이하와 같이 論하고 있다 「古來朝鮮文化는 대개 支那에 基底한다 그러나 활자판 인쇄의 실용 보급에 관해서는 支那에 앞설 뿐만 아니라 西洋의 活字創始 해 보다 약 45년 앞서는 것은 조선으로서는 문화사상 자랑할 만한 것이다 (中略) 또 文祿 慶長年代에 조선활자서적 및 활자가 전래한 것은 당시의 일본활자 인쇄술의 진보를 促進하고 所字版과 같은 것은 모두 조선활자판을 기준으로 하며 諸史籍에 이 사실을 明記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 11) 특히 漢城司令官이었던 宇喜多秀家가 가지고 돌아온 銅活字 및 印刷機器가 秀吉에게 獻上되어 그것이 또다시 秀吉로부터 다시 皇室에 獻上되었다 皇室에서는早速하게 1593년 조선활자에 의한 後陽成天皇의 勅版이 천황과 그 近親들에 의해 행해져 『古文孝經』을 비롯해서 慶長 2年の 『錦繡段』, 『勸學文』, 慶長 4년 『日本書紀』등이 인쇄되었다 또 徳川家康의 伏見版 駿河版(銅活字) 文祿 4년 12월에 本國寺의 僧日保에 의해 一部限華文義序 및 민간출판업자의 印行이 활발히 행해져 漢籍 仏書·醫書·日本古典 등이 속속 출판되었다(前掲庄 9의 川瀬氏論 參照)

임진왜란(文祿·慶長の 役)때에 조선의 활자·서적 등의 문물의 일본유입은 많은 학자들에게 유학연구의 자극제가 되었다 또 그밖에 阿部吉雄氏는 『日本 朱子學과 朝鮮』(東京大學出版會 1965년 62頁)에서 文祿 慶長の 役때에 포로로서 끌려온 李退溪學派의 成牛溪를 師匠로하는 조선의 주자학자 姜沆은 일본 유학의 興隆에 貢獻했다 그 중에서도 惺窩가 유학자로서 독립하는데 정신적 학문적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에게 관리를 맡겼다 家康의 사후 이 藏書는 오와리(尾張)의 「蓬左文庫」, 키이(紀伊)의 「南葵文庫」, 미토(水戶)의 「彰考館文庫」의 御三家를 중심으로 分藏되었다 그 밖에 카가(加賀, 지금의 金澤縣)의 前田家の 「尊經閣文庫」, 角倉了以의 「角倉文庫」, 「毛利文庫」, 薩摩島津家 등에도 소장되었다<sup>12)</sup>

당시에 일본에 도래한 서적의 量을 상상할 수 있는 기록으로, 德富蘇峰이 『文祿慶長 이후 일본에 있어서 朝鮮의 感化』(中央朝鮮協會 1930년 29頁)에서 「당시의 諸將은 서점이라도 시작할 예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책을 가지고 왔다. 그 서적을 진열하면 神田의 神保町 주변의 서점은 몇 개쯤 되었을지 모를 정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說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당시 活字 印刷器材 一切과 많은 서적을 빼앗긴 조선에서는 그후 70년간 活字鑄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從來 존재했던 『명심보감』 원본을 비롯하여 많은 서적의 行방도 알 수 없었다 『명심보감』에 관한 최근의 黃淳九 교수의 『原本 明心寶鑑』(太學社 2頁)에 의하면 『명심보감』의 초기 판본인 「淸州本」과 「洪城本」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것은 壬辰倭亂(文祿·慶長の 役) 때 소실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한 「淸州本」과 「洪城本」, 中에 「淸州本」의 원본은 임진왜란 때 도래한 판본으로 日本 筑波大學 附屬圖書館(이 판본은 임진왜란 때 전래한 판본으로 御三家에 분장된 도서 가운데 水戶에 소장된 도서의 일부로 판단됨)에 귀중 도서로서 보관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의 브리츠 포스 교수의 「『明心寶鑑』에 대하여」(東北大學 『日本文化研究施設編 文化研究所研究報告』 第21集 1985년 9頁)는 「淸州本」이 임진왜란(文祿·慶長の 役) 때에 일본에 전래된 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있다 포스 교수에 의하면 당시 豊臣秀吉의 朝鮮 침략 때에 본부가 있었던 名護屋(九州)에서 일한 선교사 코보의 『명심보감』 스페인어 번역 원고 중에 『명심보감』의 편자는 「淸州本」이라고 하는 記述(誤認)이 보여진다 그러므로 코보가 접한 판본도 임진왜란때 도래한 「淸州本」 『명심보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명심보감』 판본이 임진왜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 현존하는 이 「淸州本」 『명심보감』(1454년 성립 종래의 명심보감 판본에 비해 3배이상의 量) 이 세계 각국의 『명심보감』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이 판본은 1974년 成均館대학 李佑成 교수가 동해의 舊家에서 발견한 판본(제17 「存信篇」 缺落, 그 이후 제18 「言語篇」, 제

12) 임진왜란의 서적에 관해서는 川瀬一馬 『古活字版의 研究』(155頁)의 지적이 있고 崔官氏의 『文祿 慶長の 役』(2頁)에 상세하다 또 筑波大學 附屬圖書館의 貴重圖書로서 保管되어져 있는 조선본에 대해서는 藤本幸夫氏의 「東京 教育大學藏 朝鮮本에 관하여」(『朝鮮學報』81, 1976년)에 상세하다

19 「交友篇」, 제20 「婦行篇」의 일부도 缺落)의 完本이다

또 林羅山이 자신의 저서 『童蒙抄』에 인용한 『명심보감』의 판본도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부터 유입된 「靑州本」 『명심보감』인 것을 확인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임진왜란 때에 전래되어진 활자·서적의 관련으로부터 小瀬甫庵이 『明意寶鑑』·『政要抄』의 편찬에 사용한 판본 및 內閣文庫·尊經閣文庫의 『명심보감』의 중국본, 혹은 조선본도 임진왜란 때 조선을 經由한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 일본 『명심보감』이 위정자·지식인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어진 것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유입된 후이다<sup>13)</sup> 이것은 『명심보감』이 임진왜란 후 지식인들에게 수용된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식인들에 의한 『명심보감』의 條文을 인용한 편찬서적의 성립을 고찰하여 『명심보감』과 위정자·지식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 (2) 『明心寶鑑』의 條文을 인용한 지식인과 관련서적

前記의 室町시대 東陽永朝의 『禪林句集』의 『명심보감』인용 외에,

① 江戸시대 초기의 승려출신의 유학자, 藤原惺窩(永祿4-元和5, 1561~1619, 冷泉 爲純의 아들, 이름은 肅, 播磨출신으로 처음 相國寺의 승려였지만 유학을 독자적으로 체계화해 京學派를 일으켰다 그 門人으로 林羅山, 松永尺五, 那波活所, 堀杏庵 등의 많은 俊才가 있다) 의 저서 『寸鐵錄』에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한 부분이 있다<sup>14)</sup> 惺窩가 禪院을 나와 儒服을 입고 德川家康 앞에서 신유학을 제창한 것은 세키가하라戰 직후인 1600년의 일이다 또 그가 처음 선승으로서 五山에 전해진 儒佛의 학을 전수 받았으나 불교와 대결하고 博士家와 대결하며 유학자로 독립하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가져온 송원 및 조선에서 출판된 서적과 임진왜란때의 포로였던 주자학자 강항과 친교를 맺은 것이라고 한다

② 幕府의 유학자로서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의 한사람이었던 林羅山(1583~1657, 幕府 儒官 林家의 始祖 名은 忠 혹은 信勝, 法號는 道春, 京都出身 처음

13) 일본의 『명심보감』의 여러 가지 종류는 他國에서는 그 예가 없지만 이것은 타국의 연구자에게도 그다지 인식되어져 있지 않다 이 풍부한 종류의 판본은 일본 근세의 지식인에게 많이 알려져 사상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江戸時代 中期 以後는 前期에 비해 활발한 인용은 보여지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 前田 金五郎氏는 「『浮世物語』 雜考」 『國語國文』 1965년 6월)에서 「명심보감은 近世 初期 대중적 漢籍이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일본의 유학연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진 元祿 以後는 잊혀진 서적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寬政10年(1798년) 以後는 他國으로 부터의 傳來가 途絶하고 있다 그 후 새롭게 출판되어지지 않은 점을 보아 日本社會에 있어서 『명심보감』의 직접적 영향의 脈은 그 후에는 계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식인에 의한 문학작품에의 인용이 사람들에게 勸善懲惡을 권한 것 등 啓蒙的 교훈서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4) 冷泉府書 「寸鐵錄」(『藤原惺窩集』 上卷 思文閣出版 1951년 359頁)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

建仁寺의 승려였지만 일찍부터 주자학 연구를 결심하고, 藤原惺窩의 門人이 되었다. 1605년 德川家康에게 종사하여 이후 家綱까지 4대 將軍의 侍講 外交文書·諸법도의 초안을 만들고, 幕府政權의 整備에 貢獻했다)은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부터 건너온 많은 서적을 다른 사람들 보다 앞서 讀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sup>15)</sup> 그의 도덕적 啓蒙書인 『童蒙抄』(上下 한권으로 寬文六·1666년, 武林三郎兵衛刊行, 宮城縣立図書館靑柳文庫, 他藏 또 別名 『訓蒙要言錄』에서 上 中 下 세권, 文化9년 1812년 加賀屋善藏梓, 東北大學 狩野文庫, 他藏)에는 『명심보감』의 대부분의 篇에서 폭넓게 條文을 인용하고 있다. 그 底本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임진왜란 때에 전래한 서적 중의 하나인 「靑州本」 『명심보감』이다.

③ 江戸시대 前期의 醫師, 유학자인 野間三竹(1608~1676)은 『北溪含毫』(세권, 元祿五, 1692년 林九兵衛壽梓)에 『명심보감』의 條文을 인용하고 있다. 三竹은 經義를 林羅山에게 배웠지만 『北溪含毫』의 『명심보감』에서 인용한 조문의 내용도 羅山과 유사하다.

④ 加賀藩에서도 『명심보감』을 보유했다. 특히 藩主 前田綱紀(松雲公, 1643~1724)는 好學적인 藩主였으나 政治的으로는 江戸幕府=武家政權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또 綱紀는 武藝白般을 鍛鍊하여, 兵法軍學과 함께 학문에 精勵하고 주자학을 林家에게 배운 뒤 널리 각 방면의 학자를 招聘하여 17세부터 典籍의 학습을 시작하여 諸學을 닦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勉學을 최대한 실제 정치상에 활용하려 했다고 알려져 있다<sup>16)</sup>

특히, 藩主 前田綱紀의 활발한 학문활동이 기초가 되어 『명심보감』의 사상이 藩主 및 藩士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藩士 淺香久敬(1657~1718)의 『徒然草諸抄大成』(1687년 刊行)에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한 부분이 있다. 즉 明治 43(1910)년 室松岩雄編輯의 『徒然草諸抄大成』 全(『國文學』 註釋全書 國學院大學 出版部刊行)에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한 부분(8, 22, 32, 189, 291, 297, 336, 389, 400, 438, 576頁 등)이 보인다.

加賀藩의 재력으로 歷代藩主가 모은 많은 장서가 東京 駒場の 「尊經閣文庫」에 전해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몇 권의 『명심보감』 판본도 존재한다<sup>17)</sup>

⑤ 江戸 초기의 유학자·의사(道喜·또는四郎, 甫庵은 호, 尾張 출신 豊臣秀次·

15) 前掲의 庄(11)의 『日本朱子學과 朝鮮』 72 150頁

16) 川瀬一馬 『日本文化史』(講談社 學術文庫 1978 247頁 참조 또 近藤齊氏の 『近世以降 武家家訓의 研究』 資料編 (風間書房 1975년 84頁)을 참조하면 四代 藩主前田光高는 「학문은 聖賢의 道를 알고 善道를 알고 善道를 나라에 행하는 것이다」라고 善導를 행하기 위해 學問을 권하고 있다.

17) 『명심보감』의 판본이 前田綱紀가 소유했다는 것은 『桑華書志四十七 求遺書, 甲之三』에 쓰여져 있다. 이 사실은 前掲 庄(4)의 白石晶子氏의 『明心寶鑑의 流通과 에스파니아 譯의 問題』 863頁를 참조한 것임.



堀尾吉晴·前田利常에게 從事했다)로써 『信長記』·『太閤記』·『天正軍記』 등의 저작자로 유명한 小瀬甫庵(1564~1640)이 이용한 대형활자는 임진왜란 때에 조선에서 流入된 활자양식으로 보여진다<sup>18)</sup> 그 활자양식에서 甫庵의 慶長 중에 간행되어진 『明意寶鑑』·『政要抄』 등 數点의 활자판을 내었다 특히 그의 著書 『明意寶鑑』 및 『政要抄』·『童蒙先習』에는 『명심보감』의 政道論에 감명되어 인용한 條文이 많이 보인다 그는 한때 加賀藩(임진왜란 때, 조선으로부터 유입된 서적을 보존)에서 봉직하였으며 『禪林句集』에 『명심보감』의 조문을 인용한 저자 東陽永朝와 같이 美農의 土岐氏의 출신이다<sup>19)</sup>

⑥ 당시에 막대한 출판량을 자랑하고 서민의 사상형성에도 큰 활동을 한 淺井了意(1612~1691)의 『浮世物語』·『堪忍記』·『可笑記評判』·『鑑草』에 『명심보감』이 인용되어져 있다 특히 了意는 『浮世物語』·『堪忍記』에서 『명심보감』으로부터의 인용이 많이 보여지지만 그 인용부분은 甫庵·羅山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상에서 지식인에 의한 『명심보감』 인용의, ②③④⑤⑥까지는 前田金五郎氏의 부분적인 지적과 玉懸博之氏의 甫庵의 『명심보감』의 사상적 영향을 論한 논문을 참조했다 그러나 前記의 ① 및 이하 ⑦의 貝原益軒에서 ⑫의 山東京伝까지는 필자의 조사에 의한 것이다

⑦ 貝原益軒(1630~1714, 江戸시대의 유학자, 福岡 사람 向井元升에게 의학을 배워, 주자학을 주로했지만, 양명학도 연구 福岡 藩醫가 되어, 교육·경제분야에도 공적을 남김)의 『大和俗訓』(寶永五, 1708), 『和俗童子訓』(寶永7, 1710년)에도 『명심보감』으로부터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인용의 방법은 小瀬甫庵·林羅山·淺井了意와는 상이한 점이 많다

⑧ 寛文元(1661)년 간행의 『仮名草子』, 『似我蜂物語』(작자 미상이지만 내용의 善의 표현으로 禪僧이 작자라고 추측되어진다 수필 설화 일상생활의 메모 등으로부터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혼재해 있다)도 『명심보감』을 인용하고 있다

⑨ 江戸의 國學者·神道家인 宮川道達(貞享五, 1688년 頃沒)의 『訓蒙要言錄故事』(別名『訓蒙故事要言』 全十卷十冊) 중에 『명심보감』의 조문이 많이 인용되어져 있다

18) 前記의 川瀬一馬 『古活字版の研究』(15頁)에 의하면 「甫庵이 일찌기 활자 인쇄에 임한 것은 在來著名한 사실이었지만 (中略) 甫庵이 多數의 醫書を 出版하고 있는 것은, 그가 豊臣秀次の 醫라는 說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또 그가 尙선해서 新式의 印刷法을 採用한 것은 關白秀次に 近侍하고 기법을 빨리 熟知하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甫庵이 사용한 大型活字에는 朝鮮활자의 樣式이 잘 나타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 이미 拙稿 「『明心寶鑑』이 日本文學에 끼친 影響」(『日本文學』45, 日本文學協會編 1996년 6월 20頁)에서 論한 바와 같이 甫庵과 『명심보감』과의 사상적 영향을 최초로 論한 것은 玉懸博之氏이다

⑩ 江戸시대 후기의 한학자, 音韻學者로(諱는 方, 通稱 八郎, 字는 叔龜, 호는 全齋 父藤藏은 福山 藩御旗奉福行格) 福山藩의 문학교수를 역임함 藩士 太田全齋(1759~1829)의 『諺苑』(寛政九, 1797년 自序, いろは 순의 編集으로, 선행하는 俚言에의 專著 『和漢古諺』·『和漢故事』·『大和故事』·『諺草』·『本朝俚諺』·『カナヲシ』외에 和書·漢籍 百余部로부터 援引)에도 『명심보감』이 인용되어 있다

⑪ 劇作者·狂歌師로 알려져 있는 太田南畝(1749~1823)의 隨筆集에 『명심보감』의 이름이 있다

⑫ 劇作者·存世繪師로 알려져 있는 山東京伝(1761~1816)의 『昔話稻妻表紙』 등에 『명심보감』의 조문이 보여진다

여기에서 『명심보감』이 지식인에게 읽혀져 많은 관련서적이 편찬된 것은 중국·조선과는 다른 일본 독자의 수용방법이다 특히, 藤原惺窩·林羅山·小瀬甫庵 등 전래 당시 직접 『명심보감』을 이해한 사람은 상당히 높은 교양을 가진 신분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0)</sup> 또한 『명심보감』이 지식인에게 널리 수용되어 많은 『명심보감』관련서적이 편찬된 사실을 보면 에도시대에 『명심보감』의 권선사상이 주자학과 더불어 幕藩體制 이데올로기로서 일본사회에 넓은 독자층을 가진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종래의 『명심보감』 판본에 더해 지식인에 의한 『명심보감』으로 부터 조문을 인용한 서적이 편찬되면서 『명심보감』의 「和刻本」도 간행되었다

### (3) 近世의 出版文化의 狀況과 『明心寶鑑』의 「和刻本」

임진왜란때에 유입된 활자 인쇄가 寛永(1624~1643) 이후는 대량출판에 적합한 整版印刷로 성행했다 이와 동시에 『명심보감』도 前期의 많은 지식인에게 읽혀져 「和刻本」이 거듭 간행되었다 당시 江戸시대는 鎖國정책 가운데 조선·중국·네덜란드 등과의 문화교류 및 무역이 행해졌지만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선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현재에도 일본 국내에 많은 판본이 존재하는, 「抄略本」 『명심보감』은 이 때 조선으로부터 새롭게 전래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長崎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서적이 유입된 것은 周知의 사실이지만 그 서적 중에도 새

20) 이미 중국·조선에서 『명심보감』은 위정자들에게 중요시되어 勅撰書(萬曆15년 明實錄) 혹은 官版의 形態로 간행되어 지식인에게도 넓게 읽혀졌다 스페인 등에서도 선교사가 가지고 돌아온 『명심보감』의 판본이 위정자에게 獻上되어 중시되었던 사실이 있다 조선에 있어서 「官」에서 주목되었던 것으로 筑波大學 附屬圖書館藏의 「淸州本」에 의하면 跋文의 語尾에 景泰 5년 甲戌 11월 初吉淸州儒學教授官 謹跋이 붙어 있으며, 桁을 다시 牧判官具人文, 淸州 牧使皇甫恭, 道事金孝給 등의 官職·姓名을 列書하고 忠淸道 觀察黜陟使閔鸞을 최후의 순서로 地方官이지만 「官學者」의 跋文과 함께 그 지방의 최고위자의 人名이 쓰여져 있다

로운 『명심보감』의 판본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록(享保20, 1736년 이후)을 필자는 이미 밝힌 바 있다<sup>21)</sup>

寬永 이후는 새로운 판본이 종래의 室町시대의 五山僧을 통한 版本 및 安土桃山시대의 임진왜란 때에 전래한 판본이 더해진다 즉 지식인이 條文을 인용한 『명심보감』 관련서적 이외에도 『명심보감』의 「和刻本」의 刊行과 새롭게 전래한 조선본(抄略本 『명심보감』)과 중국본(明刊本·清刊本 『명심보감』)이 더해져 『명심보감』의 최절정기가 된다 이 가운데 寬永期 후에도 『명심보감』의 「和刻本」이 연이어 간행되어진 것은 『명심보감』이 江戸시대 중기의 思想界(특히 幕府 이데올로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에 중요한 서적으로서 정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명심보감』 「和刻本」의 첫 간행은 일반적으로 寬永8(1631)년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奥野彦六氏의 조사에 의하면 벌써 寬永三(1626)년의 출판기록이 있지만<sup>22)</sup>, 지금으로서는 寬永 3年版의 존재는 알 수 없다 그후 寬永8(1631)년 3월 中野道伴에 의해서 간행되어진 版本이 18세기 후반까지 版을 거듭하고 있다<sup>23)</sup> 이 「和刻本」의 판본은 현재 필자의 조사만으로도 일본 국내의 13개소(東北大學 附屬도서관 狩野文庫, 東洋文庫, 오차노미즈 도서관, 成實堂文庫, 香川大學 도서관 神原文庫, 京都大學 도서관, 龍谷大學 도서관, 關西大學 泊園文庫, 廣島大學 中國哲文學연구실, 內閣文庫, 松平文庫, 長澤規矩也氏, 前田金五郎氏, 奥也彦六氏 등)의 연구기관 및 개인에 보존되어 있다

또 寬永8(1631)년 翻刻된 「和刻本」에 관해 深澤秋男氏에 의하면 『명심보감』 正文이 万治2(1659)년의 서적목록에서 正德5(1715)년의 『增補書籍目錄大全』까지 책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명심보감』이 많이 보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sup>24)</sup> 그리고 근세 일본(에도 시대)에 성행했던 『명심보감』수용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慶應義塾大學 附屬研究所·斯道文庫編 『江戸時代 書林出版書籍目錄集成』(1962년 井上書房發行)<sup>25)</sup> 중에는 「和刻本」 『명심보감』의 간행상황에 대한

21) 拙稿 「日本思想史上에 있어서 『明心寶鑑』의 意義 -주로 林羅山을 中心으로-」(韓國教育財團編『學術論叢』 2호 1994년 6頁)

22) 奥野彦六 『江戸時代の 古版本』(臨川書店 1983년 137頁)

23) 今田洋三氏의 『江戸의 책방』(NHK 북 299, 1977년 28頁)을 참조하면 당시 사회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명심보감』을 大衆적인 것으로 만든 寬永8년 「和刻本」 『명심보감』의 출판자 中野道伴도 그 시대의 교양이 풍부한 지식인이었다

中野市右衛門과 中野道伴은 동일인물로 中野道也는 그 남동생이다 中野市衛門道伴(京四條寺町)은 禪僧이자 유학자이었던 南浦文之의 弟子라고 전해져 慶長十九(1614)년의 遍照發揮性靈集(空海詩文集) 간행을 初見으로 内·外展의 開版을 시작했다 그는 가장 일찍 등장한 출판업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일찍 시도한 『명심보감』의 간행은 그 뒤 讀書界에 있어서 『명심보감』수용에 큰 공헌을 했다 中野道伴의 『명심보감』출판사업은 지식인에게 정신적 刺激과 町人階級の 경제활동에 필요한 교양을 부여했다고 생각되어진다

24) 『近世文學資料類從』(仮名草子編十二, 『浮世이야기 -付明心寶鑑』(勉誠社 315頁)

25) 阿部隆一 「江戸時代 書林 出版目錄解題」 八頁에 의하면 私家版을 嚔 坊刻本(書店出版物)을

보다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

### 3. 맺는 말

이상 『명심보감』의 최초의 일본전래는 室町시대에 五山僧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후 安土桃山 시대, 즉 임진왜란 때에 조선으로부터 유입된 『명심보감』과 더불어 江戸시대에는 당시의 지식인이 『명심보감』으로부터 條文을 인용한 서적을 편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가운데서도 『명심보감』의 「和刻本」이 새로 간행되어진 것이다.

특히 「和刻本」 『명심보감』의 刊行 記錄에서 「和刻本」은 문화의 중심지였던 京都·大坂 및 江戸에서 1661년에서 1715년까지 간행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전기와 같이 이미 일본 국내에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多種의 『명심보감』 판본이 존재하였고, 많은 지식인이 『명심보감』의 條文을, 인용한 관련서적을 편찬한 시기였다. 즉, 江戸시대 이후도 『명심보감』의 중국·조선 판본의 전래는 계속되어 졌고 「和刻本」까지 간행되어진 것은, 寬永期 이후 『명심보감』이 보다 많은 독자층을 획득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명심보감』의 권선 사상이 에도사회에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

거의 網羅한 書籍目錄이 寬文頃부터 書林의 손으로 편찬되어 京和에 이르는 약 150년간에 걸쳐 연이어 출판되었다. 이들 書目은 현대의 出版年鑑과 出版總目錄에 該當하는 것으로 당시 讀書人보다는 오히려 書店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明治 이후는 재빨리 이들 書籍目錄에 주목하여 林若樹氏는 극히 簡明適切한 해설을 붙였다고 하고 있다.

同書의 『명심보감』의 記載는 일본에 있어서 『명심보감』 수용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하 『명심보감』을 記載한 부분을 조사한 것을 간행순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寬文(1661~1683) 無刊記書籍目錄
- ② 寬文10년(1670) 刊書籍目錄, 山王衡校
- ③ 寬文10년(1670) 刊書籍目錄, 太倉亭山衡校
- ④ 寬文11년(1671) 刊書籍目錄, 亭山王衡校
- ⑤ 寬文11년(1671) 刊書籍目錄, 太倉亭山衡
- ⑥ 延宝3年(1675) 江戸刊 新增書籍目錄, 亭山王衡校
- ⑦ 天和元年(1681) 刊書籍目錄大全
- ⑧ 元祿5年(1692) 刊서적목록, 太倉亭山衡著
- ⑨ 元祿9年(1696) 寬永6년(1629) 書籍目錄大全
- ⑩ 元祿12年(1699) 京道刊, 新版增補書籍目錄, 太倉亭山衡
- ⑪ 正德5年(1715) 書籍目錄大全

(出版年代·場所·刊行版本 등의 조사에서 당시 日本 國內에 존재하는 세계 각국의 여러 종류의 많은 『명심보감』의 판본 중에서 「和刻本」의 기틀이 되는 판본은 明代 江蘇省의 太倉 山의 王衡이 校訂하여 書肆·陳弼廷이 간행한 『明心寶鑑正文』인 것을 알 수 있다.)